

한국불교 현행 승복에 관한 연구 - 조계종과 태고종을 중심으로 -

이은숙·김진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resent Monk's Costume of the Korean Buddhist

- Focusing on Jokye and Taego Sects -

Eun Suk Lee, Jin 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Instructor of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目次

| | |
|----------------------|---------|
| Abstract | 3. 가사 |
| I. 서론 | 4. 기타 |
| II. 승복의 종류 | III. 결론 |
| 1. 저고리, 바지, 행전, 두루마기 | 참고문헌 |
| 2. 장삼 | |

Abstract

The Korean Buddhism has been an effect on the Korean culture from the spiritual culture to the living culture.

The Korean Buddhist costume, as an external form of the Buddhist culture, symbolizes the Buddhist ideas, the status difference of the general public, and keeps the tradition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nk's costume of Jokye sect and Taego sect among 47 sects. In this study, it selected Jokye sect and Taego sect, because they are occupying important positions in the Korean Buddhism. The methods of this study depended on the documentary records, existing remains, the

wearing clothing, the interviews with monks. In a changeful times, It is needed to study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uddhist costume and keeps records about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tated as follows: The Buddhist costume is composed of Chogori, Baji, Haengjon(leggings), Durumagi, Jangsam, kasa, hats, rubber shoes, Jori and Gelmang, etc. Chogori, Baji, Haengjon, Durumagi as the everyday dress are found in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The forms and kinds of the everyday dress were the same between two sects, but the colors were different. Jangsam and kasa are the formal robe. In regard to Jangsam, two sects were dressed in gray. But there were differences of design between two sects. Kasa was different in the forms, patterns, colors, and kinds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of the monk and the sects.

I. 서 론

한국불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종교로서, 정신문화에서 부터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계례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국불교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종교적 역할이 달라져 왔다. 예컨대, 초기원시불교에서는 자연과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무속적인 역할을 하였고, 근대불교에서는 사회윤리와 질서를 위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오늘날의 불교에서는 인류화합을 도모하고 보편적이고 순수한 진리추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이, 불교문화의 외현적 표현물인 불교복식 또한 시대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자비, 무소유, 탈속 등의 불교의 기본정신 등이 철저히 구현되어 검소한 불교복식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이에비해 율에 이탈된 장식적이고 화려한 불교복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의 불교복식은 종교복식이 갖는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속인과의 신분구별을 나타내며, 불교적 이념과 교리가 내재되어 있고, 오늘날의 일반대중들의 복식과는 달리 옛 구조를 거의 그대로 보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불교복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도의 기후와 의습에 맞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승복인 가사, 중국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 직철의 영향을 받은 장삼,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의습에 따라 입게 된 한국고유의 저고리, 바지 및 두루마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조계종을 한국전통불교의 종단¹⁾으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나 종교적 견해차로 인하여 현재 47여종파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불교복식도 각 종파마다 전통적 불교복식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종파간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 색, 형태, 의차 그리고 상징적 의미 등에 차이를 두고 재구성되어 착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47여종파중 조계종과 태고종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복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두 종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불교에서 제 나름대로 전통성과 정통성을 유지해오고 있고, 또한 한국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조명기외 2인, 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 p. 62.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존유물들, 두 종파에서 현재 착용되고 있는 실물들, 승려의 면담을 중심으로 하였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자기민족의 뿌리를 찾아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또한 우리 민족의 생활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불교문화의 가치적 수단인 불교복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가 급격한 이 시대에 현재의 불교복식 실태 및 이에 대한 기록보존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II. 승복의 종류

불교복식의 종류로는 우리 민족복식인 저고리, 바지, 행전,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장삼, 가사, 승모, 승화, 조리(조래기), 걸망 등으로 분류된다.

1. 저고리, 바지, 행전, 두루마기

원래 불교의 기본의는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로 된 삼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의의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후적인 조건, 문화적 관습, 사회적 환경 등으로 장삼 아래에 저고리, 바지, 행전을 갖추어 입는 것이 예로 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저고리, 바지, 행전을 입고, 외출시에는 그위에 통상예복으로서 두루마기를 입게 된다.

1) 저고리

오늘날 승려들이 입고 있는 저고리는 우리의 민족복식인 저고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중간길이의 옷을 동방의²⁾라고 부르기도 한다. 승려의 저고리는 속인의 저고리와는 달리 동정이 없으며, 여밈은 옷고름, 또는 옷고름 대신 단추, 연봉매듭과 고리, 끈으로 여머기도 하며, 양 주머니가 달려져 있다.

전통적인 승려의 저고리와 오늘날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세부적인 디테일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이는 어느 정도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절의 형식을 본떠, 일부러 천을 조각내어 조각난 천을 이어 활절의 형태인 저고리를 만들기도 하나 불교의 율장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복식 자체가 분소의와 같은 검소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절의가 된 저고리를 착용하게 된다.

두 종파간에는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색은 종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조계종에서는 사미계를 받기전 6개월 정도의 수행기간에 있는 행자는 갈색계통의 저고리를 입으며, 비구나 비구니는 수목색(회색), 쥐색, 먹물색의 저고리(사진 1)를 입게 되는데 흰색, 누런 삼베색, 검정색은 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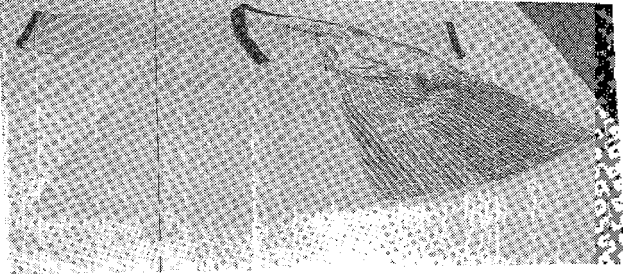
태고종에서는 행자는 갈색, 검정색, 수목색의 3색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승려들은 수목색계통의 저고리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색이나 갈색도 입을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저고리 형태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첫째, 신도들의 승복보시로 인하여 신도들의 개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점, 둘째, 산업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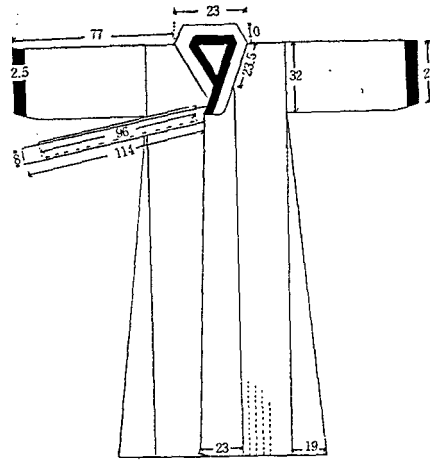
2) 유영자, 승복 - 한국의 복식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 332.



<사진 1> 승려의 평상복



<사진 2> 겨울용 누빈 두루마기



<도해 1> 겨울용의 두루마기 실측도

달이 영향을 미친 점, 셋째, 속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영향을 미친 점, 넷째, 현재의 승려 역할이 개인적 수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활동 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점, 다섯째, 종교적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려들에게 자유를 허용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2) 바지, 행진

바지는 전통한복바지와 같으며, 바지부리의 너풀거림이 없도록 행전을 매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의 바지와 행전에 있어 과거의 것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다만 바지부리에 주름을 잡아 덧단을 댄 형태, 양복바지와 비슷하게 바지부리를 좁게 한 형태, 대님을 바지부리에 고정시킨 형태, 행전을 바지부리에 고정시킨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시대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지의 형태가 기능화, 약식화됨에 따라 차츰 행전의 기능이 소실 또는 약화되어 가고 있다.

바지와 행진의 색은 저고리의 색과 동일하며 두 종파간에는 형태 차이가 없다.

3)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평상시 외출복으로 우리나라의 고유복식인 두루마기의 형태이나 동정을 달지 않으며, 계절에 따라 의차에 차이가 있다. 오늘날 여름용으로 린넨을 비롯하여 모시, 삼베, 면 등이, 겨울용으로 보온적인 면을 고려하여 누빈 재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두루마기의 간소형으로 반코트 정도의 길이인 두루마기도 입기도 한다.

색은 종파에 따라 차이가 없이 수묵색이며 겨울용 두루마기에는 깃부분과 소매부분에 비로드 등의 색깔이 있는 천을 덧대기도 하는데, 이는 때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아울러 장식적인 목적이 함께 깃들여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시대적 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해1> <사진 2>



<사진 3> 할절의 형태 두루마기

두루마기 역시 할절의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사진 3>

두루마기는 사계절내내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절적인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여름에는 외출시 두루마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두루마기는 선방에 입실시 극기, 인내의 의미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겨울용의 누빈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예도 있다³⁾고 한다.

2. 장삼

장삼은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을 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사만으로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웃옷인 편삼과 아래웃인 군을 위아래로 합쳐 꿰맨 편삼군인 직철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사 아래에 입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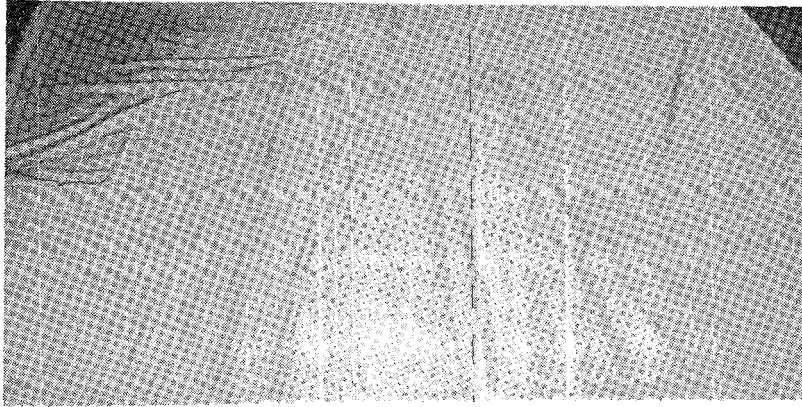
장삼은 의례시에 입는 것으로 두 종파에 따라 형태와 상징적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조계종의 장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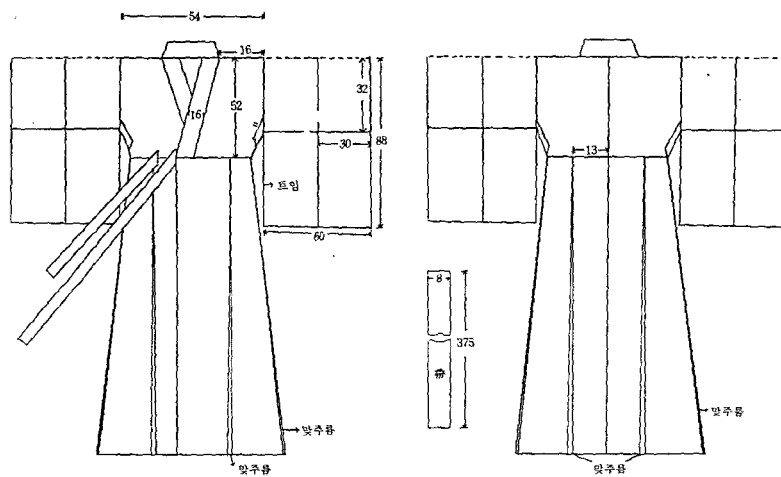
조계종의 장삼은 4조각으로 이루어진 광수로, 소매옆 솔기선이 트여져 있으며 중국의 직철과 같이 상의와 하의를 위아래로 합친 상의하상식이다<사진 4>.

상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면의 여미는 부위에는 맞주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

3) 경기도 봉선사, 명고스님의 조언.
4) 윤허용하, 불교사전, 법보원, 1965, pp. 5-6.



<사진 4> 조계종의 장삼



<도해 2> 조계종의 장삼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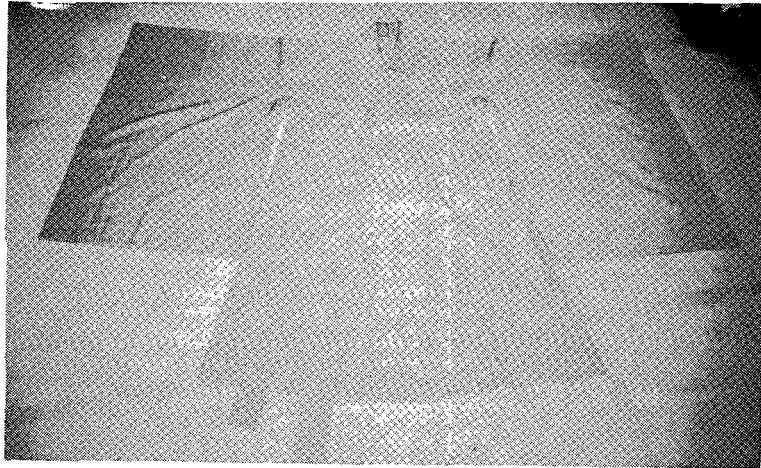
좌우의 여밈부위에 맞주름의 1/2을 각각 두고 있으며,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맞주름이 각 1개씩, 좌우 옆선에 맞주름이 각 1개씩으로 되어 있고, 후면에는 뒷중심선에 맞주름이 1개, 뒷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맞주름이 각 1개씩 되어 총 8개의 맞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해 2>

장삼은 의례시에 착용되는 옷이므로 벗을 때나 입을 때는 땅바닥에 옷자락이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 장삼의 소매 재봉선과 상의 맞주름은 장삼을 갈 때의 개는 기준선이 되어 과학적으로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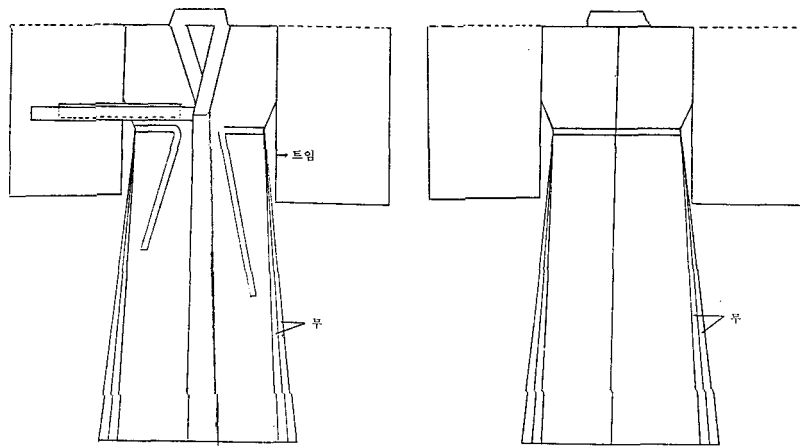
장삼의 부속품인 대는 장삼위에 5조가사를 수한 뒤 그위에 매게 된다. 이때 대는 리본모양으로 묶고 매고난 대의 양쪽길이는 장삼의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2) 태고종의 장삼

태고종의 장삼은 한 쪽의 소매로 된 장수이며, 허리부분에 이음선이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 복식인 두루마기에 거의 가까운 형태이다.<도해 3>, <사진 5>



<사진 5> 태고종 장삼



<도해 3> 태고종의 장삼 실측도

또한 조계종의 것과는 달리 대를 가슴부위에 고정시켜 놓았으며, 전면의 좌우 옆선에 각 2개의 무를 넣어 총 8개의 무가 달려있다. 이것은 신장단에 계시는 8금강 4보살을 의미⁵⁾하는 상징성이 부여되어 장삼만 입어도 8금강 4보살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⁶⁾고 한다. 즉 장삼은 의식복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보호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어 심리

5) 안진호, 석문의법, 범불사, p.59.

6) 강화 문수사, 벽옹스님의 조언.

적인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삼의 색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람색, 흑색이었으나 흑색금령이후 탄색으로 바뀌었으며⁷⁾ 종파에 관계없이 오늘날은 일률적으로 회색을 사용하고 있다.

염색법에 있어 재래식으로 나뭇잎, 우분, 나무열매, 흙, 먹물로 염색하였고 백색포에 탄즙으로 염색⁸⁾하거나 진달래꽃의 뿌리를 태워 나온 재에 식초와 소금을 넣어 삶기도 하며, 식초와 소금을 넣은 먹물로서 염색하기도 하며, 진달래꽃의 수술을 곱게 빻아 물을 뺀 후 햇빛에 말리고 나서 그 가루를 탄 물에 여러번 염색을 하고난 후 찻물에 삶기도 한다⁹⁾.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염색기술발달, 염료의 다양화, 복잡한 현대생활에 따른 간소화의 영향, 적극적인 포교활동의 확대 등으로 인한 시간결약을 위해 보통은 회색으로 염색 가공된 포가 사용되고 있다.

3. 가사

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 아란에게 속인 및 외도와외 신분구별을 위해 짓도록 한 최초의 불교복식으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많이 깃들여져 있다. 가사 그 자체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산물로 성보 중의 성보이다.

원래 가사는 인도에서는 의복의 역할로 이용되었으나, 이것이 중국이나 우리 나라로 전래되면서 기후와 풍토에 따라 의복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복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의식용 법의로서 형식화되어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

가사는 장삼을 비롯한 다른 승복에 비해 “입는다”. “착용한다”는 말대신 “수한다”, “드리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가사가 불교복식중 가장 성스러운 복식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가사가 진정한 법의로서 사용되려면 가사점안의식을 거쳐야 하고 이 의식을 거쳐서야만 “법의”라는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¹⁰⁾. 즉, 가사점안의식을 행하지 않은 가사는 일반대중들의 옷과 같이 하나의 사복에 불과하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가사는 인도 최초의 가사 형태인 할절의에 바탕을 둔 형태이나 색, 종류, 용도, 문양, 여미는 장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조계종의 가사

조계종은 대승불교로 심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참선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여타의 불교적 행동은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사불사에 치중하거나 전통적인 가사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많이 생략시키고 있다.

(1) 색

조계종의 의제법에서 보면 가사색은 울의 기록을 근거로한 피색이며, 이는 부처님의 원법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피색은 청, 니, 적의 합염색을 말하는 것¹¹⁾으로

7) 임영자,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제4호, p. 64.

8) 문화재대관(보물 5), 대학당, 1988, p.245.

9) 한국생활과학연구 제5호,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7, p.8.

10) 양산 통도사, 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의 조언.

11) 종교법령집(의제법), 대한불교조계종, 1985, p. 29.

이삼색을 합염하여 만들어지는 피색은 우주화합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¹²⁾.

(2) 종류

조계종의 의제법에 의하면 가사는 만의,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로 나누어져 있다. 만의는 조로 나누어지지 않은 한 장의 천으로 된 가사를 말하며, 사미, 사미니가 수하도록 되어 있다. 안타회인 5조가사는 절내에서의 의식행사시 일할 때 수하게 된다. 울다라승은 7조 가사로 예불, 통경, 의식 및 회의시에 수하게 된다. 또한 승가리는 9조, 15호, 25조의 가사로 설법 및 결식시에 수하게 되는 것으로 법계가 5급 이상은 9조, 3급 이상은 15조, 1급 이상은 25조를 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율에 의거해 제정된 것으로 여겨지나 오늘날 실제적으로는 사미, 사미니는 만의를 거의 수하지 않으며, 6개월간의 행차기간후에 아사리로부터 십계를 받으면 사미, 사미니가 되는데 이때 5조, 7조의 가사 2의를 받게 되므로 이미 사미, 사미니가 되면 5조, 7조의 가사를 수하게 된다.

또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가사의 종류로는 의제법의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크게 5조 가사, 대가사, 그리고 근래에 생긴 반가사로 나눌 수 있다. 5조 가사는 본래 인도의 안타회인 5조 가사와 그 형태가 크게 다르며, 대가사는 7조, 9조, 15조, 25조의 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조수에만 차이가 있지 실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편단우견으로 착법하며 법계에 따라 조수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가사는 대가사대신 약식으로 보통 비구계, 비구니계 이상을 받은 승려들이 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율에 기록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를 구별하여 수하기 보다는 법계에 따라 그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5조 가사

5조 가사는 1조가 1장 1단인 5조로 이루어진 장방형으로 목에 거는 끈이 달려있으며, 그 끈의 중앙에는 만자가 새겨져 있어 착용시 만자가 뒷목 중심부에 오도록 하고, 장삼의 대를 5조 가사위에 둘러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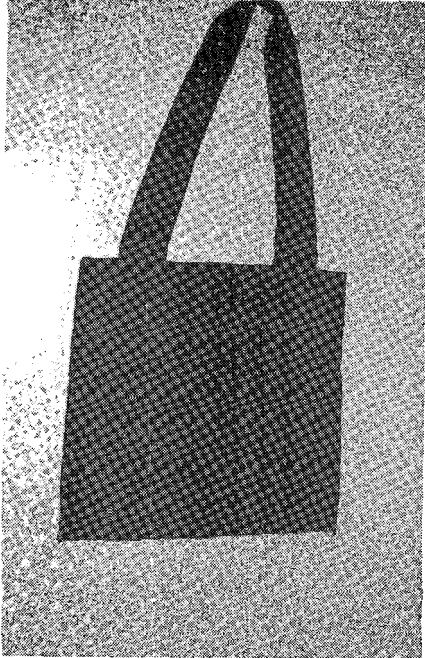
5조 가사는 탐다리니행사와 같은 의식시 일할 때 수하는 가사이며, 법계에 관계없이 수한다.〈사진 6〉

② 대가사

대가사는 7조, 9조, 15조, 25조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한다. 7조 가사는 1조가 2장 1단으로 모두 7개의 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9조 가사는 1조가 2장 1단으로 되어 모두 9개의 조수로 구성되어 있다. 15조 가사는 1조가 3장 1단으로 모두 15개의 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5조 가사는 1조가 4장 1단으로 모두 25개의 조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로 266cm, 세로 139cm 안팎의 장방형이다.

십계인 사미계를 받은 사미, 사미니는 7조 가사를, 250계인 비구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는 9조 가사를, 그리고 법계가 높을수록 높은 조수의 대가사를 수하게 된다. 대가사의 여밈은 연

12) 경기도 봉선사, 명고스님의 조언.



<사진 6> 조계종의 5조 가사

봉매듭과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7>.

③ 반가사

대가사보다는 작은 장방형의 크기로 대가사를 약식화한 형태이다. 상단에는 왼쪽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어깨대가 달려져 있다. 반가사는 전통적인 가사형태가 아니고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 간소화, 기능화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성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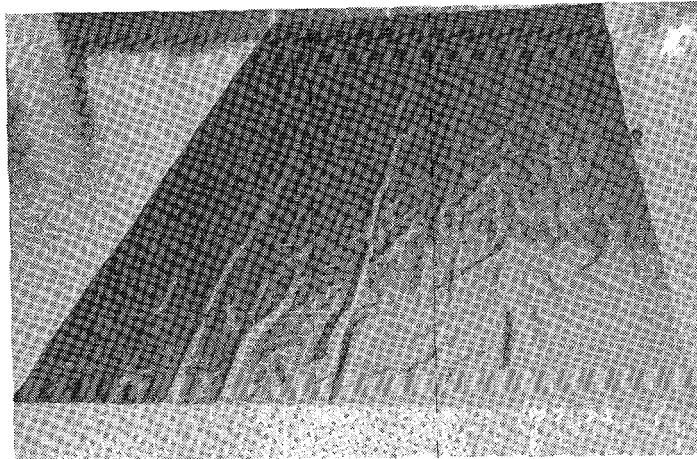
(3) 의재

현재 조계종의 가사 의재는 면, 마이어야 한다고 의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성섬유도 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태고종의 가사

(1) 색

태고종의 가사색은 홍색으로 석문의범에 수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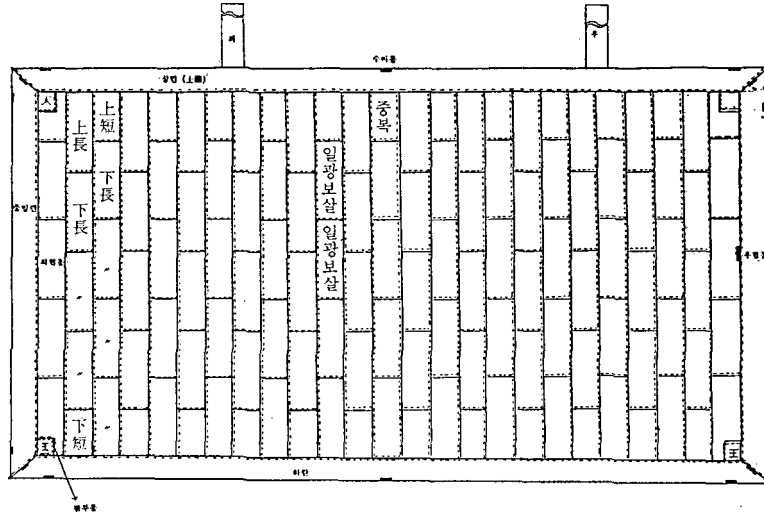


<사진 7> 조계종의 대가사 -7조가사-

어 있는 장엄염불에 아미타불의 덕상을 설명하는 구절에 [녹라의상 홍가사]라는 내용이 수록¹³⁾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가사색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해석¹⁴⁾하여 전통가사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3) 안진호편, 석문의범, 법륜사, p.59

14) 강화 문수사, 벽옹스님의 조언.



<도해 4> 태고종의 25조 가사

또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달될 때 흑장삼과 홍가사가 중국으로부터 처음 전래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의 전통가사색을 홍색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태고종에서는 가사의 색을 홍색으로 하고 있다.

(2) 종류

가사에는 대가사와 반가사가 있으며,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5조 가사와 7조 가사는 없다.

① 대가사

할절의 형태로 중복의 좌측 두번째 조에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으며 좌우 모서리에 천자, 하단의 좌우 모서리에 왕자가 수놓아져 조계종의 가사에 비해 상징적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도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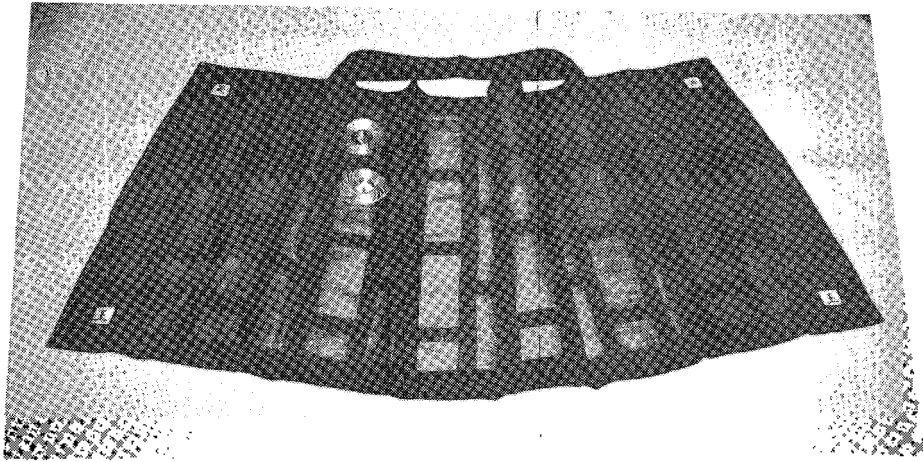
상하단의 좌우 모서리에 새긴 글자는 사방천왕을 상징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네 귀퉁이에서 호의하여 보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 귀퉁이에 천 왕자를 함께 새기는 것이 더 정확한 것¹⁵⁾이라고 한다. 또는 온세계를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움자를 수놓거나 사천왕상을 수놓기도 한다.

역시 태고종의 홍가사도 바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여기기 때문에 가사를 수하고는 스님들끼리도 서로 절할 수 없으며 부처님께만 절할 수 있다¹⁶⁾고 한다.

대가사의 종류는 조의 수에 따라 하품, 중품, 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하품은 9조의 하하품, 11조의 하중품, 13조의 하상품으로 2장 1단이며,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미가 주로 수한다. 중

15) 강화 문수사, 벽옹스님의 조언.

16) 강화 문수사, 벽옹스님의 조언.



<사진 8> 태고종의 반가사

품은 15조의 중하품, 17조의 중중품, 19조의 중상품으로 3장 1단이며 법계가 대선 이상의 승려들이 수한다. 상품은 21조의 상하품, 23조의 상중품, 25조의 상상품으로 4장 1단이며 법계가 대덕 이상의 승려들이 수한다.

② 반가사

반가사는 3장 1단의 1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광보살, 월광보살, 천왕자의 문양과 색상은 대가사와 동일하며 상단에는 왼쪽 어깨에 걸치도록 어깨대가 달려 있다(사진 8).

(3) 의재

계절에 따라 비단, 갑사를 사용하며 때에 따라 합성섬유로 된 의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계종과는 달리 불교에서 금하는 비단을 의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사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을 최고로 공양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기도 하며, 중국을 통해 장식화되고 화려하게 된 가사가 우리나라에 전래됨으로써 이를 전통가사로 여겨 태고종에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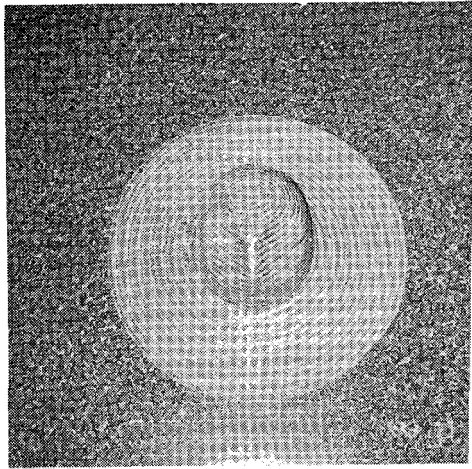
5. 기타

기타로는 승모, 승화, 조리(조래기), 걸망 등이 있다.

1) 승모

승려들이 쓰는 승모에 대해서는 종파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승낙, 삿갓, 맥고모자 등이 기본으로 사용되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에는 삿갓, 밀짚모자(사진 9), 맥고모자, 베레모, 중절모, 털실로 짠 모자 등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승려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모자류는 지양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의식용의 승모는 보이지 않으나, 태고종에서는 법회집전시 종사 이상의 법계



<사진 9> 승모 -밀짚모자-



<사진 10> 승화 -고무신-

를 지닌 승려는 끈려관을 쓰기도 한다¹⁷⁾



<사진 11> 걸 망

2) 승 화

승화는 흑색 또는 백색의 고무신<사진 10>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속인들의 신발을 신는 것도 허용되나 살생을 해서 만든 가죽신발은 금하고 있다. 두 종파에 따른 차이는 없다.

3) 조리(조래기), 걸망

조리(조래기)와 걸망은 승려들의 소지품이나 발우 등을 넣는 회색으로 된 가방으로, 조리는 어깨에 걸치도록 긴 끈이 달려있고, 걸망<사진 11>은 양어깨에 맬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어 등뒤에 매달게 된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47종과중 조계종과 태고종의 승복을 고찰하였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평상복으로 우리 고유

17) 종현종법, 한국불교태고종, p. 94.

의 복식인 저고리, 바지, 행전을 입었으며, 외출시에는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다. 또한 의복으로 저고리, 바지, 행전을 기본복식으로 하고 그 위에 장삼을 입고 가사를 수하였다.

이외에 승모, 승화, 조리(조래기), 걸망 등이 있었다.

1. 저고리, 바지, 행전, 두루마기

두 종파에 있어서 저고리, 바지, 행전, 두루마기의 형태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저고리, 바지, 행전의 색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조계종에서는 행자는 갈색, 비구나 비구니는 수목색, 쥐색, 먹물색을 입었으며, 흰색, 누런 삼베색, 검정색은 금하고 있었다.

태고종에서는 행자는 갈색, 검정색, 수목색의 삼색이 허용되었으며 승려들은 수목색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색이나 갈색도 허용되었다.

2. 장삼

장삼의 색은 수목색계통으로 두 종파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형태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계종의 장삼형태는 중국의 직철과 같이 상의하상식이며, 태고종의 장삼형태는 허리에 이음선이 없는 두루마기 형태이고 양 옆선부분에는 각각 4개의 무가 있었으며, 이것은 8금강 4보살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다.

3. 가사

조계종과 태고종의 가사는 최초의 가사형태인 할절의에 바탕을 둔 형태이나 색, 종류, 문양 및 그 상징적 의미에 차이가 있었다.

조계종의 가사색은 피색으로 부처님의 원법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가사의 종류로는 크게 5조 가사, 대가사, 반가사로 나누어지며, 5조 가사는 의례시 주로 일할 때 수하며, 대가사는 대부분 의례시에 수하게 된다. 그리고 조의 수에 따라 7조, 9조, 15조, 25조로 나누어졌다. 가사의 크기는 조의 수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나 법계가 높을수록 조수가 큰 대가사를 수하였다. 반가사는 요즈음 새로 생겨난 것으로 대가사를 약식화한 형태인데 의례시에 대가사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의재는 면, 마,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태고종의 가사색은 홍색이며 이는 석문의범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과 중국을 통해 전래된 화려하고 장식화된 우리나라의 전통가사에 그 근간을 두고 있었다. 가사의 종류로는 대가사와 반가사가 있었다. 대가사에는 조의 수에 따라 하품, 중품, 상품으로 나누어지며, 법계가 높을수록 조수가 큰 대가사를 수하였다. 또한 일·월광의 보살을 상징하는 문양과 사천왕을 의미하는 천왕의 글자가 있어 조계종의 가사에 비해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조계종의 가사에 있는 5조, 7조의 가사는 없었다. 반가사는 15조로 문양과 색깔은 대가사와 동일하고 형태와 착용방법은 조계종의 반가사와 동일하였다.

4. 기타

승모, 승화, 조리(조래기), 걸망에 있어 두 종파 모두 승려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금하

고 있었으나, 일반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생활과학연구 제5호,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87.
2. 신난숙, 가사에 관한 연구, 복식 제15호, 1990.
3. 유영자, 승복-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4. 이순덕, 법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 이초연, 한국불교 영산제, 복식 제19호, 1992.
6. 임영자,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7. 전영숙, 법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6권 1호, 1978.
8. 문화재대관 7(보물 5), 대학당, 1988.
9. 불교의 지식 100, 민족사, 1990.
10. 불교학대사전, 흥법원, 1991.
11. 안진호, 석문의법, 법륜사.
12. 운허용하, 불교사전, 법보원, 1965.
13. 이회익, 불교의 교단생활, 불광출판부, 1984.
14. 일타, 사미율의, 삼영출판사.
15. 조명기외 2인, 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
16. 종단법령집, 대한불교조계종, 1985.
17. 종헌종법, 한국불교태고종.
18.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 한정섭, 불교계율해석, 주영문화사, 1986.